

# 2회 관악공익활동가대회 '함께돋움'

- ▣ 일시 : 2018.1.25.(목)~1.26.(금)
- ▣ 장소 : 안성고삼재연수원
- ▣ 후원 : 서울특별시
- ▣ 주최 : 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회

# 1

# 목 차

■ 공익활동가대회 열기	-----	
환영합니다	-----	3
일정표	-----	4
■ 공익활동가대회 워크숍		
관악공동조직(준) 그것이 알고싶다	-----	6
관악민주주의학교와 생활정치네트워크	-----	10
우리가 만드는 관악공동조직	-----	16
■ 활동나눔		
관악뿌리기금	-----	21
관악공익활동가복지현장	-----	24
2018 관악공동조직 시민협력플랫폼사업	-----	36
■ 참여단체 및 명단	-----	42

**2**

**공익활동가대회 열기**

# 환영합니다

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묵묵히 그러나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활동가 여러분들을 공익활동가대회라는 이름으로 1년 여 만에 다시 뵙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무술년 새해, 세우신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지고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1년 전 공익활동가 대회를 돌이켜 보면 서울시 어느 자치구 보다 시민사회의 역량이 뛰어나다는 관악의 활동가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새로운 연대를 꿈꾸는 소중한 자리였다는 생각을 새삼스레 다시 해보게 됩니다.

당시는 또한, 2016년 겨울에 작은 촛불로 시작한 시민의 힘이 커다란 햇불이 되어서 국민을 배반한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촛불 혁명”의 바로 한가운데 있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던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시민의 힘을 믿고 바로 그 시민의 힘을 모아서 우리가 활동하는 관악구를 보다 더 살맛나는 지역으로 만들기를 희망하는 여러분과 함께 저 또한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면서 이런 소중한 경험을 더욱 튼튼히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번째 공익활동가 대회를 준비한 관악공동조직(준)은 이러한 다짐을 함께 모아 실천적으로 행동해 나가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지향하는 시민의 힘을 더욱 폭 넓게 확대하면서 그 힘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시민운동의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는 활동, 시민의 바람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정치가 아닌 진정한 생활정치 구현을 위한 활동,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참여 행정으로 시민의 힘으로 지역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실험과 도전이 몇몇 활동가와 단체들만의 참여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0년 가까운 지역 운동의 전통을 이어나가면서도 새로운 혁신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함께 하신 모든 활동가분들의 참여는 새삼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며, 오늘의 우리 모임이 관악 시민사회의 새로운 출발 그 첫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이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꼭 만들어 나가야 할 길이기때, 서로가 서로를 믿고 ‘나 혼자 아닌 우리’라는 마음으로 즐겁게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지와 격려, 그리고 연대의 정신을 가슴에 품고 지역을 새롭게 바꿔 나가는 활동가로서의 자부심을 뿌듯하게 느낄 수 있는 활동가 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 박승한 이명애**

## 일 정 표

일정		내용	장소	비고
1일차 (1/25)	09:30~11:30	집결 및 이동	관악구청	
	11:30~14:00	점심식사 및 휴식	식당	
	14:00~15:00	환영의 시간	강당	■ 진행 : 박경란
	15:00~15:30	워크숍 열기 - 2017 관악공동조직 (영상) - 민주주의학교와 생활정치네트워크 (곽충근)	강당	■ 진행 : 여용옥
	15:30~15:50	휴식	강당	
	15:50~18:00	워크숍 - 관악공동조직(준) 그것이 알고싶다 (이명애) -내가 만드는 관악공동조직	강당	■ 진행 : 정시영  (한국주민운동교육원 대표)
	18:00~19:00	저녁식사	식당	
	19:00~20:00	활동나눔 - 관악뿌리기금 선정 발표 - 관악활동가복지현장 협약식	강당	■ 진행: 남상덕, 이승배 , 정유미
	20:00~21:00	친교의 시간	강당	■ 진행 : 윤확돈, 한황화
	21:00~	뒷풀이	강당	
2일차 (1/26)	08:00~09:00	아침식사	식당	
	09:00~10:00	개인 짐, 숙소정리		
	10:00~11:30	정리하기 -2회 활동가대회 평가나눔 -3회 활동가대회 제안	강당	■ 진행 : 한황화
	11:30~	숙소출발		

**3**

**공익활동가대회 워크숍**

# 관악공동조직(준) 그것이 알고 싶다

## 1. 관악공동조직(준)은 왜 만들어졌나요?

관악의 시민사회(주민)운동은 그 뿌리와 역사가 깊습니다. 그 역사를 큰 흐름에서 살펴보면, 70년대 빈민지역(달동네)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생활의 문제로부터 조직화를 시도했던 '지역(마을)의 시대'가 있었고, 이러한 활동의 결과가 95년 구단위 주민운동을 표방하며 관악주민연대와 관악사회복지가 창립된 이후 2000년을 전후한 시기는 철거투쟁을 중심으로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투쟁과 요구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을 전후한 시기까지는 '확장과 자력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성장하였고, 단체들마다 대안적인 운동과 삶을 모델로 삼아 시민사회단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가는데 주력하였습니다.

2010년 초반 이후는 '협력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2년 주민참여예산을 필두로 행정에서 주민참여가 본격화되면서 행정은 시민사회의 협력이 없이는 더 이상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양한 경로와 정책을 통해 주민참여 영역을 확장해 갔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이후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협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협치 영역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에서 시민사회를 인식하는 것은 아직은 실무적인 파트너이거나 또는 제한적인 역할에 한정 - 참여는 있으나 권한은 없는 -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확장된 공간 속에서 시민사회활동가들의 적극적인 협치 영역으로의 활동의 이전 또는 겸임과 새로운 활동역량이 성장하는 않으면서 때로 시민사회의 역량이 더 이상 확장되고 강화되는 것을 질곡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한편으로는 협치 영역에서 보다 전면적이고 힘 있는 결합 - 참여의 권리와 책임 - 을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한편 시민사회 고유의 비판과 견제의 기능 - 감시자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대안적인 정책과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공동조직이 필요함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사회환경은 변화된 운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2017 촛불혁명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다시금 인식하게 하는 계기였고, 민주주의를 향한 발걸음은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관악공동조직(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시민력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의 역량을 축적하여 지속가능한 시민운동의 토대를 만들고, 개별 단체활동을 넘어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 비전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 2. 관악공동조직(준)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나요?

처음 관악공동기구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진 것은 2016년 3월 18일(금)입니다. 벌써 2년 전의 일입니다. 이 제안에 참여한 분들은 관악주민연대 (김미경, 곽충근) 관악사회복지(박승한, 홍선) 관악마을마당(박정란, 여용옥), 난곡사랑의집(배지용, 김한수), 봉천동 나눔의집(김남석) 이렇게 9명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안자들은 2015년부터 “마을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통합전략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해 오면서 관악지역의 시민사회운동에 대해 진단하고, 관악시민사회의 역량을 보다 통합적으로 결집하고, 지역사회의 비전과 전략을 함께 개발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개별 단체를 넘어서 관악시민사회공동기구가 필요함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차 제안대회(3월 18일 - 40여명의 지역활동가 참여), 2차 제안대회(5월 20일 - 30여명의 지역활동가 참여)를 거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관악시민사회연대회의” 차원에서 논의를 책임있게 이끌어 가기로 결의하고, 처음 관악공동기구를 제안한 주체들과 관악시민사회연대회의의 구성원들이 함께 8월 20일(토)에 워크숍을 통해 공식적으로 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9월 8일 1차 공동조직준비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관악공동조직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지역현안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협치2.0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등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함께 활동을 만들어 왔습니다.

## 3. 관악공동조직(준)은 어떤 활동을 해왔나?

▶ 정례회의 안정화 : 2016년 1차 준비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2016년 12월까지는 격주 정례회의를 진행하고, 2017년부터는 매월 정례회의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안별 연대를 넘어 포괄적이고 상설적인 연대를 만드는 신뢰와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관악시민협력플랫폼 사업 추진 : 시민력강화를 위한 서울시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에 3차 참여하였습니다. 관악구 시민협력플랫폼은 관악구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심층면접을 통해 과제로 제안된 활동들을 시민협력플랫폼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관악공동조직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마중물이 되도록 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 서울시 협치 2.0 대응 : 관악구에서 서울시의 협치2.0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고,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더불어 협치조정관에 김미경 관악주민연대 상임이사를 파견하고, 협치지원관 2명을 추천하여 관악구 협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 공동조직(준) 워크숍 : 2017년 3월 3일(금)~3월 4일(토) 관악산펜션에서 관악공동조직의 목적과 조직구조를 둘러싼 쟁점들을 확인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관악공동조직은 관악구의 시민사회운동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 1) 시민의 정치력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변화
- 2)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의 지속가능한 성장
- 3) 시민력 향상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공동조직(준) 조직논의를 위한 집담회 : 2017년 4월 21일(금)에 그동안 쟁점이 된 조직논의를 정리하여 관악공동조직이 어떤 구조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강력하고 힘 있는 연대조직으로서 관악공동조직을 상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악공동조직은 단체 멤버십을 기본으로 한다.
- 관악공동조직은 관악시민사회단체들의 연합체적인 성격을 갖는다.
- 관악공동조직은 논의체나 협의체가 아닌 독자적인 의결권을 가진 조직이다.
- 관악공동조직을 통해 결의된 사항은 각 회원단체들이 성실히 이행한다.

▶ 지역현안 대응 : 한남운수 공대위와 서울대 공대위, 노동복지센터 건립 등 시급한 지역 지역현안에 대응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 공동조직 창립준비 워크숍 : 2017년 12월 23일(토)에 공동조직 창립을 위한 기본적인 틀거리를 만들고, 합의하는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창립준비팀(박승한, 이명애, 홍선, 곽충근, 김혜정)을 구성하였습니다.

#### 4. 관악공동조직 창립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관악공동조직 창립총회는 2018년 3월 9일(금) 오후 5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동조직 창립준비팀을 구성하여 창립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 준비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고, 관악주민연대와 관악사회복지 총회준비위원회를 찾아가 관악공동조직의 목적과 위상 등에 대해 설명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습니다.

이후 최소한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규칙 등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관악공동조직은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관악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서로가 가진 역

량을 조금씩 모아 함께 하고 싶고,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해야 하는 활동을 함께 하는 - 특히 실무활동가들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체 회원들의 역량을 모아 함께 하는 활동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 5. 관악공동조직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재 공동조직준비위원회는 곧 공동조직의 정식 창립과 더불어 해산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조직을 확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악공동조직 창립 이후에는 공동조직의 뜻과 취지에 공감하고, 일정정도의 자격을 갖춘 단체는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관악공동조직은 권리보다는 의무가 더 많은 활동일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언제나 그렇듯이 힘을 보태고 역량을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악공동조직의 발전이 단체의 발전과 더불어 참여하는 개개인의 성장과 발전으로도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잊지않겠습니다.

**관악공동조직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은 단체는 “찾아가는 설명회” 신청하세요!**

# 관악민주주의학교와 생활정치네트워크

## 1. 관악민주주의학교 추진 배경

### ○ 단체별 교육프로그램의 중복과 한계

- 개별 단체별 혹은 조직별로 활동가 및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중복과 혼재
- 마을아카데미, 참여예산, 사회적경제, 상상력, 실천인문학.....
- 단계별 혹은 개별 단체를 넘어서는, 관악 전체를 조망하는 공동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

### ○ 시민력,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 촛불 이후 생활 속 민주주의에 대한 주민관심 증대
- 사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시민력, 시민의식 성장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 증대

### ○ 참여와 실천의 교육

- 생활 속에서 실천까지 함께 하는 교육(생활 속 민주주의 실천)
- 시민사회가 연대활동의 형식으로 진행하던 의정평가, 예산분석 활동의 지속성과 체계성 보완

### ○ 관악시민협력플랫폼 추진

- 2016년 11월 관악의 시민력 제고를 위해 서울시로부터 ‘관악시민협력플랫폼’ 사업으로 위탁받음
-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관악민주주의학교’ 개시

## 2. 2017년 관악민주주의학교 추진 경과

### ○ 관악민주주의학교 준비위원회 구성

- 시민협력플랫폼과 관악공동조직구성을 준비하던 단체의 활동가 결합
- 2017년 2월 관악민주주의학교 준비위원회 구성(관악주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관악도시농업네트워크, 관동학운협, 전교조, 세상과 연애하기 등)
- 관악민주주의학교 기획 및 진행 역할 담당

○ 제1기 관악민주주의학교 진행

- '민주주의, 똑똑똑'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구분	날짜	내용	강사
1강	5.24(수)	○ 민주주의, 똑똑똑 - 대의민주주의, 선거제도, 깨어있는 시민	곽노현
2강	5.31(수)	○ 생활 속 민주주의 - 시민정치의 시대, 동네안의 시민정치, 관악구 시민정치	김의영
3강	6.7(수)	○ 노동없는 민주주의? - 노동, 노동자, 노동조합, 노동인권	이성대
4강	6.14(수)	○ 두근두근 민주주의 - 민주주의의 이해와 실천	이명애

- 참여 : 관악 시민사회 활동가 및 주민 62명, 연인원 155명

○ 제2기 관악민주주의학교 진행

- '더 좋은 지방자치, 더 나은 생활정치'

구분	날짜	내용	강사
1강	9.13(수)	○ 지방자치의 이해 1 - 지방자치, 그것이 알고 싶다	이동영
2강	9.20(수)	○ 지방자치의 이해 2 - 주민참여, 더 좋은 지방자치를 만든다	이동영
3강	9.27(수)	○ 지방의회 의정평가 1 - 주민의 눈으로 의정활동을 보다	이명애
4강	10.11(수)	○ 지방의회 의정평가 2 - 의정활동, 주민이 평가하다	이명애
5강	10.18(수)	○ 지방정부 예산분석 1 - 재정구조의 이해 : 예산의 시작과 끝	김상철
6강	10.24(화)	○ 지방정부 예산분석 2 - '재정공시'와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예산분석하기	김상철
7강	11.1(수)	○ 지방정부 예산분석 3 - 예산(안)과 사업분석의 방법	김상철

- 교육 후 생활 속에서의 실천을 계획하며 '지방자치'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

- 교육교재 개발

- 참여 : 관악 시민사회 활동가 및 주민 68명, 연인원 224명

- 1기, 2기 민주주의학교 수료생과 기존 의정평가단 활동에 참여하던 주민, 활동가와 함께 예산분석, 의회방청, 의정평가 실천팀 구성(의정평가단, 생활정치네트워크)

- 제 245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방청

### 3. 2018년 생활정치네트워크 추진

○ 구성 : 2017년 관악시민협력플랫폼 시민정치, 관악민주주의학교, 정책포럼에 참여했던 주민과 활동가를 중심으로 생활정치를 실천하는 네트워크 구성 중

○ 2018년 생활정치네트워크 활동 계획

구분	내용
생활정치네트워크 구성	-관악구에서 일상적인 생활정치를 실천하는 네트워크 구성
민주주의학교 운영	-제3기, 4기 관악민주주의학교 진행
생활정치활동	-2018년 예산분석활동 보완 -제7대 관악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및 발표 -제8대 관악구의회 감시활동, 2019년 관악구 예산분석 -주민과 함께 하는 정책제안활동 -2018년 지방선거 대응활동(붙임 제안서 참조)
청년네트워크 지원	-2017년 청년정책포럼 후속 네트워크 지원활동

## (가칭)2018 지방선거 관악공동행동 제안서

### I. 응답하라, 2018

2018년. 다시 선거의 해입니다. 4년을 주기로 돌아오는 선거지만 매년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없었고 2018년의 지방선거는 한층 그 의미를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화문을 가득 메운 촛불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정권을 바꾸고 사회 곳곳에 파리 뜬 적폐를 청산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폐청산을 넘어 정상사회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광화문의 촛불을 생활 현장의 촛불로 옮겨와야 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민주주의가 피어나야 합니다. 생활 속 민주주의의 실현 무대로서 2018년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2018년. 개헌이 맞물려 있습니다. 민주화의 염원을 담은 87년 헌법은 30여년이 지난 한국의 현실을 담기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정당만이 아니라 국민 사이에도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권과 자치의 방향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주민참여의 통로를 다양하게 확대해 자치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염원입니다. 그러나 권한의 이양과 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숙에 기반해야 합니다. 자칫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무대로서 2018년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2018년. 관악의 시민사회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1991년 이후 7번의 지방선거 대응의 경험을 이어가려 합니다. 시민사회의 정치참여는 대의민주주의의 실패를 보완하는 생활정치 측면에서 생활자인 주민이 일상생활의 문제를 의제, 정책화시키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대표의 선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포함합니다. 실제 관악의 시민사회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견제활동의 경험, 주민의 의견과 생활현실을 의정과 행정에 반영시킬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 대응의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의정평가, 예산분석, 주민후보 출마, 후보정책검증, 생활정책 제안활동까지 주민과 함께 만들어낸 생활정치의 경험이 그것입니다. 관악 생활정치의 실현 무대로서 2018년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이에 관악에서 활동하는 제 시민사회단체 및 활동가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2018년 지방선거가 관악의 시민사회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생활 속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생활정치 실현의 장으로서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가칭) 2018 지방선거 관악공동행동’의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시민단체 및 활동가들의 많은 관심과 논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II. (가칭) 2018 지방선거 관악공동행동 개요

### 1. 논의경과

- 
- 2017.1.19 -2017년 관악공익활동가 대회에서 ‘시민정치팀’ 구성
- 3월~6월 -시민정치팀 정기모임 진행  
 -관악구 생활정치 관련 활동역사 교육  
 -7대 관악구의회 구성, 선거구, 의회구조 교육
- 7.19 -응답하라, 2018 ‘관악의 시민사회, 지역정치를 말하다’ 토론회  
 -선거제도 개편과 지역정치(하승수) / 관악 시민사회와 지역정치 (곽충근)
- 10.27~28 -‘2018년 지방선거, 관악의 시민사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워크숍 개최  
 -2018년 지방선거에 대한 관악시민사회의 기대사항 정리
1. 일상적 소통과 정책연대가 가능한 구의원 배출
  2. 주민의 정치의식화, 정치에 대한 관심 확대
  3. 일상적인 생활정치조직이나 네트워크 만들기
- 2018년 지방선거 준비팀 구성
- 12월~1월 -2018년 지방선거에 대한 관악시민사회 참여방법 논의  
 -(가칭) ‘2018 지방선거 관악공동행동’ 제안 결정
- 

### 2. (가칭) 2018 지방선거 관악공동행동 구성

- 위상 : 2018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관악시민사회의 대표기구
- 역할 : 시민사회의 선거 대응 방법, 내용 논의 및 집행
- 구성 : 관악의 제 시민사회단체
- 1차 모임 : 2.20(화) ※ 장소와 시간은 추후 결정
- 제안주체 : 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회
- 문의 : 곽충근 (010-6242-8573)

### 3. 주요 활동계획

일정	내용	비고
2018년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 1. 의정평가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7대 관악구의회(2014.7~2018.6) 의정활동 평가보고서 발간, 발표대회</li> <li>-평가결과 홍보</li> <li>-현역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판단 근거 마련</li> </ul> </li> </ul>	<p>의정평가단 2018지방선거 관악공동행동</p>
3월~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2. 정치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정치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정치캠페인</li> </ul> </li> <li>○ 활동3. 정책제안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정책만들기, 정책제안 대회</li> </ul> </li> <li>○ 활동4. 관악공동행동 제안 활동</li> </ul>	<p>2018지방선거 관악공동행동</p>

## 우리가 만드는 관악공동조직

관악공동조직 어떻습니까? 열심히 참여하겠다. 아직 잘 모르겠다  
관악공동조직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마음을 나눕니다.  
여러분의 나눈 생각과 마음이 공동조직 창립선언문에 담깁니다.

### <창립선언문 예시보기>

배경 - 관악지역에 공동조직이 필요한 역사적 사회적 지역적 현실과 미래  
목적 - 관악공동조직이 이루고자 하는 세계와 지역사회  
역할 - 목적을 이루기 위해 관악공동조직이 할 일  
다짐 - 관악공동조직이 지켜야할 활동 원칙이나 신념

배경	목적
역할	다짐

공동조직 이름짓기

## 창립선언문 - 성북신나

한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

“내가 교수가 되기 이전에는 공부를 안 해도 교수가 됐다. 내가 교수가 될 때쯤에는 공부를 해야 교수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공부를 해도 교수가 될 수 없는 시대다.”

성북신나를 시작하려고 했을 즈음에 청년이라는 세대는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진 세대이면서도 받는 대접은 박했다.

가능성은 확인되기도 전에 재단되고는 했다. 너무 열심히 하면 취업벌레가 되고 다른 대안을 두리번대고 있으면 잉여라든지 루저 같은 말들이 따라왔다.

생존을 위한 치열함 속에 마음은 공허했고 펼쳐진 생태계는 불안했다. ‘살고자 하는 일이 신나는 일이면서 더 나은 가치를 위한 일일 수 없을까’ 많은 청년들이 생각을 했다.

이어지는 고민에 동네로 산책을 나간 청년들은 문득 느낀다.

“여기엔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본격생계형협동조합을 자처하는 청년들의 협동조합 성북신나는 그래서 말한다.

성북신나는

1. 청년들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및 삶의 생태계를 만들고자 한다.
  2. 적극적인 네트워크와 연대를 통해 혼자만의 고민이 공유와 확산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문화와 예술을 통해 지역 자원이 선순환 되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
  4.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 하여 서로에게 말한다.

성북신나는

1. 전체와 개인을 함께 존중한다.
2. 자신의 언어를 갈고 닦는 가운데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려 노력한다.
3. 서로가 손 내밀고 손잡기를 주저 하지 않으며 함께 꿈꾼다.
4. 걱정하되 두려워하지 않으며 인정하되 방관하지 않는다.
5.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일’로 확장시켜 나간다.

갈팡질팡하던 경험이 다양한 생존의 방식, 대안적 삶의 형태, 보다 나은 세상에 대한 상상력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댄다.

계획 되어진 환경보다 기획해나가는 선택권을 위해 협동이라는 어려운 방식을 택한 청년들의 앞길이 이제 구만리다.

구만리라니. 차라리 신난다.

##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창립선언문

‘바꿈’을 선언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까?

현실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불황과 심화되는 양극화, 폭증하는 가계부채와 주거비, 치솟는 등록금과 사라지는 좋은 일자리,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확산이 보여주는 정부의 무능, 그리고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정치권.

우리사회는 현재의 불만과 불안을 극복할 등불을 쉬이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잃어버린 국가와 정치권의 무능은 어둠이 걷힐 것이라는 기대를 무색케 합니다. 또 시민사회의 역동성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사회 전반에 희망, 꿈, 기대, 사랑, 활기, 존중, 배려는 약해지고 냉소와 체념, 조롱이 넘치고 있습니다.

광복 70년에 우리사회를 이끌어 온 긍정적인 힘을 우리는 어떻게 다시 복원해야 할까요! 지금, 무엇을,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작지만 큰 첫 걸음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독선과 독단의 창조주 역할을 자임할 생각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 시민사회,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곳곳에 남아 있는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찾고 같이 키워 나갈 것입니다. 어떤 소박한 희망이라도 현실로 만들어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갈 ‘엔진’이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우리는 그 엔진이 힘을 발휘하는 작은 나사못, 연결 벨트, 윤활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2015년 7월 7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개방적이며 유연한 방식으로 사회의 힘을 모으는 연결고리가 되고자 합니다. 공감을 기초로 공동의 관심사를 만드는 바꿈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2.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한국 사회 전체와 파트너십 단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자 합니다. 개별단체로서 바꿈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협력과 조정을 통해 한 걸음 더 진전된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4.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우리사회의 꿈과 희망을 발굴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재미있고 쉽게 전달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 일반시민의 요구를 대변하지 못하는 사회운동을 지양합니다. 정치와 사회운동이 민주적 선순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배제되지 않으며,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꿈을 함께 꿀 모든 이들에게 손 내밀어 ‘바꿈’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15년 7월 7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일동

## 창립선언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의 주역이며 사회개혁과 역사발전의 원동력인 우리들 노동자는  
오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창립을  
선언한다.

저 멀리 선배 노동자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간고한 탄압 속에서 민족해방과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피어린 투쟁을 전개했다.

해방 이후 우리 노동자들은 독재 정권의 가혹한 탄압 속에서 민주노조를 지켜 왔고, 87  
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2,000 여명에 이르는 구속자와 5,000여명이 넘는 해고자를 낳  
는 등 온갖 탄압 속에서도 조직을 확대 발전시켜 왔으며, 전국적 공동임투와 노동법 개  
정투쟁, 사회개혁투쟁 등을 전개하면서 통일 단결을 강화해 왔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통일 단결된 힘을 기초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중  
양조직을 결성한다. 민주노총으로 결집한 우리는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  
는 노동조건의 확보, 노동기본권의 쟁취,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 척결, 산업재해 추방  
과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사회의 민주적 개혁  
을 통해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과 더불어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국경을 넘어서서 전세계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고 침략전쟁과 핵무기 종식을 통한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조직의 확대 강화에 박  
차를 가하는 한편 산업별 공동투쟁과 통일투쟁에 기초하여 산업별 노조에 기초한 전국  
중앙조직으로 발전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자주성과 조합내 민주주  
의를 강화하고 전체 노동조합운동의 통일 단결을 위해 매진할 것이며, 제민주세력과 연  
대하여 정치세력화를 실현할 것이다.

자 ! 자본과 권력의 어떠한 탄압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깃  
발을 높이 들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의 그 날까지  
힘차게 전진하자!

1995년 11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4**

**활동 나눔**



작은 기쁨이 모여  
큰 희망이 됩니다.

# 관악뿌리기금

관악의 든든한 뿌리 공익활동가들과 함께합니다.  
세상과 마을을 이롭게, 이웃과 함께하는 소중한 삶  
공익활동가들이 활짝 웃어요.



## 관악뿌리기금은?

풀뿌리 시민사회 활동가와 관악구 미래를  
만들어갈 청년을 응원하는 기금입니다.

관악구는 지역자치 활동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1970년대부터 지난 40여년간 마을공동체와 공익활동을 위해 수고한 수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관악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익활동가,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작은 기쁨을 만드는 "관악뿌리기금"을 시작합니다. 관악뿌리기금은 주민자치 뿌리를 보다 든든하게 하며, 관악과 함께하는 수많은 공익활동가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관악뿌리기금 이렇게 쓰입니다>



**활동가들에게 마음의 선물배달**  
울타리가 되어준 선배,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해준  
후배에게 작은 선물로 큰 기쁨을 드립니다.



**활동가들의 심과 재충전 지원**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당신의  
투자를 돕습니다.



**삼삼오오 활동가들의 모임지지**  
우리는 모여야 제맛!  
여럿이 서로를 지지하는 모임을 응원합니다.



**활동가들의 교육비 지원**  
배워서 남주는 참 특별한 공익활동가들의  
성장하고 학습을 응원합니다.

**관악공동조직(준) 관악뿌리기금**  
<http://cafe.daum.net/gwanakwith>  
<https://www.facebook.com/gwanakwith>

**후원계좌** 132-095-761584 관악실험 남상덕  
**문의** 관악뿌리기금 준비위원회  
위원장 남상덕 010-6788-0251

관악구의 이웃과 더불어 살며 사랑하고, 희망을 만드는 "관악뿌리기금"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 관악뿌리기금 응원하는 분들

- 관악뿌리기금통장개설 132-095-761584 관악신탁 남상덕

: 2018년 1월 23일 현재 후원하신 분들

활동가복지팀 위즐추석특판 나효우 박승한 김혜정 남상덕 이주형 홍선 이승배 이병창 박미향 한자원 여용옥 송상윤 곽충근 정은진 한광섭 장주희 이상선 임동빈 조계성 김정만 민경대 오향숙 서인호 최승현 이명애 홍만형 오미옥 박수진 이진호 이규업 이승용 김남석 김찬일 조성호 정미선 최윤정 신관식 이동재 배기남 전교조중등관동지회 박장곤 원상희 탁선형 박인영 정시영 김인희 유효진 박재준 김기민 박영신 권도일 김용재 전교조관동지회남강고분회 이영우 김현숙 정창교

- 같이가치온라인모금함 개설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47311>

: 2018년 1월 23일 현재 후원하신 분들

■ 직접기부 16명

몰래천사 김미경 fmt\*\* cho\*\* 희동 나효우 yy0\*\* 남일 ima\*\*

몰래천사 몰래천사 희도리 mrb\*\* miw

■ 댓글, 응원, 공유로 참여기부 2,135명

<응원의 댓글 소개해요>

jin\*\* 지지와 격려의 경험으로 다시 성장하기를 응원합니다.

고석균(고수) 좋은성과 기대합니다. 힘차게 응원합니다.

mon\*\* 관악활동가들!!! 파이팅!!!

홍경수(협동조합사이협동가) “죽순은 뿌리부분 마디가 짧습니다. 올라갈수록 마디가 만들어내는 강고한 힘이 대나무의 큰 키를 지탱합니다. 죽순은 뿌리에서 돋아나죠. 누가 심어주는게 아닙니다. 뿌리는, 갇힌 땅속에서 자기를 뺏어가야하는 뿌리는 아예 마디 투성입니다. 그리고 이 죽전, 대나무밭의 모든 뿌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때에도 언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함께” 쇠귀 신영복스승  
SUS\*\* 공익활동가의 활동을 도와주는 관악뿌리기금준비위원회가 있는지는 몰랐습  
니다. 다양한 공익활동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런 기관의 활동이 좀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가 좀더 따뜻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주  
세요 화이팅!

fmt\*\* 관악뿌리기금화이팅!!

tt9\*\* 공익활동가, 관악활동가분들 응원합니당

foo\*\* 세상은 아직 함께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mic\*\* 응원댓글 + 응원 + 공유까지 하시면 금방 300원씩 기부됩니다!! 많은 분들  
이 동참해 더 큰 기부가 되도록 이 댓글 복붙해주세요

희동 목표액 달성을 기원합니다. 이후로도 쪽~~~

oro\*\* 모든 지역구가 이처럼 아름다운 아명으로 단합할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nah\*\* 관악뿌리기금이 지역에 단단히 뿌리내리도록 뿌리기금의 활동 운영비로 후원  
을 합니다

taj\*\* 관악의 공익활동가들이여, 아무리 추워도 떨지 마시라!

owl\*\* 같이의 가치.. 마을에서 품을 내고 마을사람을 지원하는 관악뿌리기금... 멋지  
네요~~

lam\*\* 관악에서 시작해서 다른 지역에도 되면 좋겠네요~ 화이팅입니다

x-s\*\*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도봉도 같은 마음 준비하고 싶네요!

bam\*\* 그렇군요. 이런 단체가 있어서 또 다른 활동가들에게 힘이 되겠군요. 응원합  
니다.

low\*\* 활동가들이 신나게 활동하기를 기원합니다.

희도리 관악풀뿌리기금이 무럭무럭 커졌음합니다! 활동가로 사는것, 관찰은 인생입  
니다요^^

cal\*\* 멋져요! 좋은 사람들이 즐겁게 공익활동할 수 있는 관악이 되길 빕니다!

탱쥬니어2 언젠간 좋은날 올거야~ 핫팅>> 무한전달중 멋지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엄지척이십니다

nan\*\* 돈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남누리 꼭 많은 따뜻한 마음들이 모이길 응원할게요. 화이팅!!

# 관악 공익활동가 복지 현장

## ‘관악 공익활동가 복지향상을 위한 약속’

공익활동가란 ‘공공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주민과 시민사회 성장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관악의 공익활동가들은 활동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기쁨을 얻지만, 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 건강악화 등 많은 어려움들로 현장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이 다소나마 개선되기를 기대하며 ‘관악 공익활동가 복지현장’을 만들었습니다.

관악시민사회단체는 활동가들의 노동과 삶의 조건을 향상 시키는 것이 개인 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나아가는 방향임을 믿으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 ◆ 하나. 공익활동가는 공익적 활동을 하는 노동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
- ◆ 하나. 공익활동가의 성장은 주민과 지역사회의 성장이다. 공익활동가는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 ◆ 하나. 공익활동가는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발생하는 **시간외근로, 주말근로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 ◆ 하나. 공익활동가는 건강한 노동과 활동을 위해 휴가 등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
- ◆ 하나. 관악시민사회는 **활동가의 행복할 권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8년 1월 25일

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회(인)

단체명(인)

# 활동가 복지현장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

## I. 프로젝트개요

### 1. 배경 :

2017년 제1회 공익활동가대회를 통해 활동가들의 욕구에 따라 7가지 이슈(지역문제, 시민정치, 교육, 네트워크, 공간, 여가, 활동가복지)를 발굴하여 각각의 팀을 구성하고 이슈에 부합하는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해왔다. 이에 활동가복지를 위한 ‘활복한 접시’팀에서는 상반기에 활동가들을 위한 통증아카데미를 기획하고 운영하였다. 이어 하반기에는 활동가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가복지현장을 마련하고 배포하며 복지환경을 개선하고자 기획하게 되었다.

### 2. 프로젝트 진행과정

<p><b>STEP1.</b> <b>설문기획 및 조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지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가근무실태,</li> <li>- 복지환경조사</li> <li>- 복지욕구 등</li> </ul> </li> <li>◆ 설문지 배포 및 취합</li> </ul>	<p><b>STEP1.</b> <b>포커스그룹인터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커스그룹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연령,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10인 초대</li> </ul> </li> <li>◆ 설문결과를 토대로 심층적 내용확인 및 인터뷰 진행</li> </ul>	<p><b>STEP1.</b> <b>복지현장 기초안 마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결과, 인터뷰 결과를 중심으로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복지환경 기초 항목 정리</li> </ul>
<p><b>STEP.4</b> <b>활동가복지현장 완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가복지현장 보완 및 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가자, 관악공동조직(준) 등 통해 기초안 공유 후 의견취합 및 보완</li> </ul> </li> <li>◆ 복지현장 현판제작</li> </ul>	<p><b>STEP.5</b> <b>협약처 발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현장의 취지 및 배경 등 지역내 시민단체들에 홍보</li> <li>◆ 이에 동감하고, 복지현장을 준수 할 단체들을 발굴</li> </ul>	<p><b>STEP.6</b> <b>활동가복지현장 선포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성된 복지현장을 관악의 활동가 및 단체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현장 선포식을 실시</li> <li>◆ 복지현장 현판 전달식 및 복지현장 구현을 위한 실천</li> </ul>

### 3. 프로젝트 함께 하는 사람들

- 이종환, 이수희, 이종열, 정유미, 정승혜, 원상희

## II. 활동가복지헌장 마련 위한 설문조사 결과

### 1.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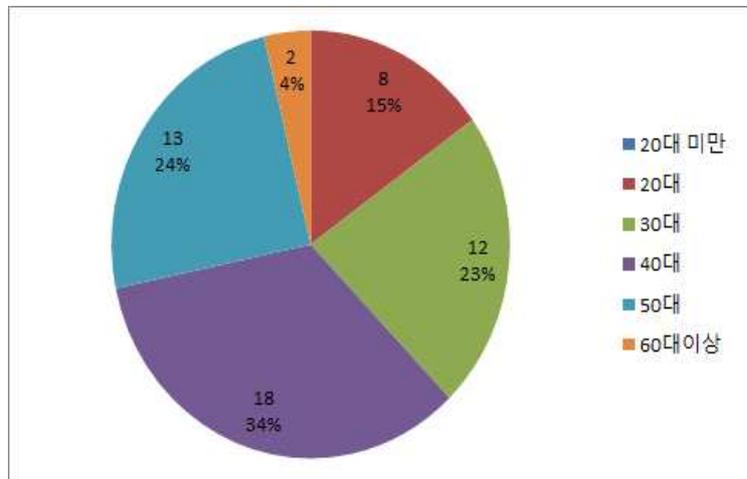
- 1) 설문설계 : 2017.9.4.(월)~10.13(금) 총 4회 활복팀 회의 통한 설계
- 2) 조사일시 : 2017. 10.14(토)~11.1(수) 총 18일간
- 3) 조사대상 : 관악구 내 단체 및 네트워크 등에서 활동하는 지역활동가
- 4) 배포방식 : 문자 및 카톡안내, 구글설문지 활용
- 5) 응답자수 : 55명

### 2. 조사결과

#### 1) 응답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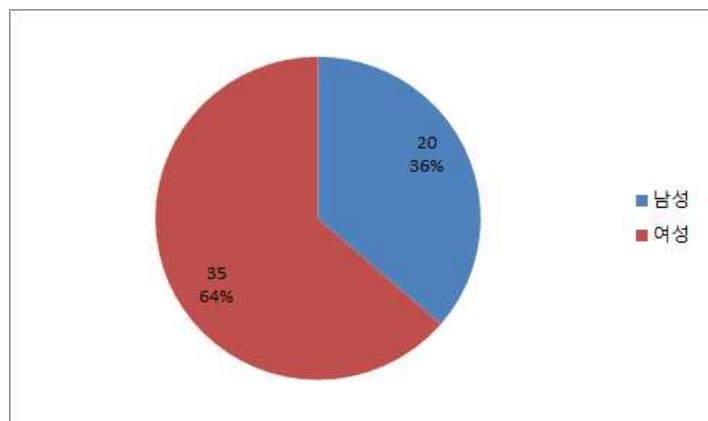
〈표1〉 응답자 연령

구분	빈도	퍼센트
20세 미만	0	0%
20대	8	15%
30대	12	23%
40대	18	34%
50대	13	24%
60대 이상	2	4%
합계	5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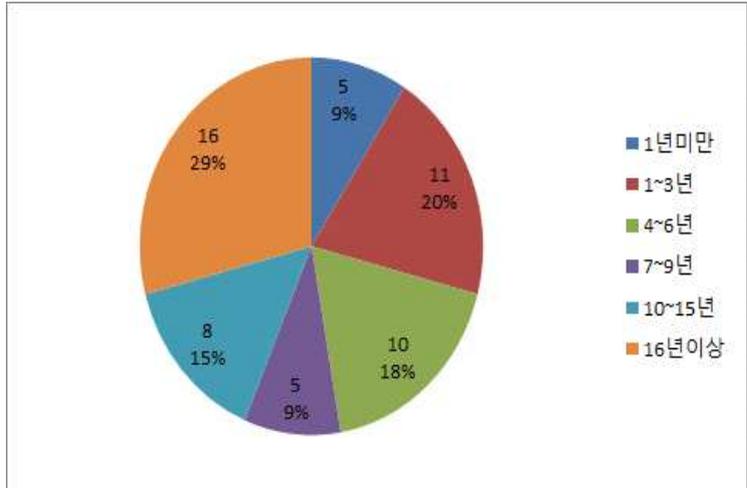
〈표2〉 응답자 성별

구분	빈도	퍼센트
남성	20	36%
여성	35	64%
합계	5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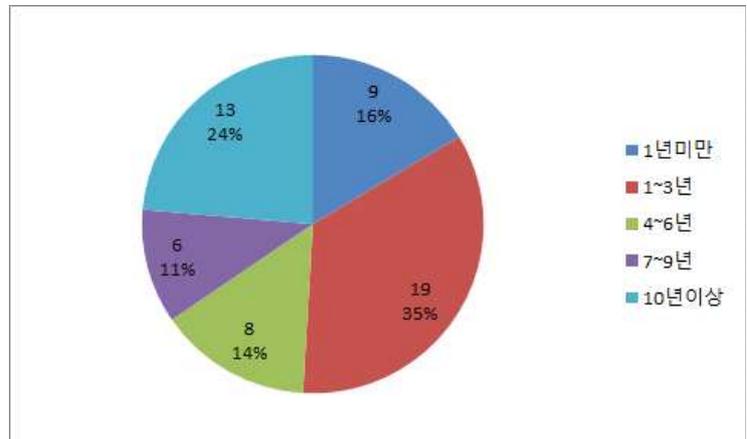
〈표3〉 응답자 총 경력

구분	빈도	퍼센트
1년미만	5	9%
1~3년	11	20%
4~6년	10	18%
7~9년	5	9%
10~15년	8	15%
16년 이상	16	29%
합계	55	100%



〈표4〉 현재 단체 내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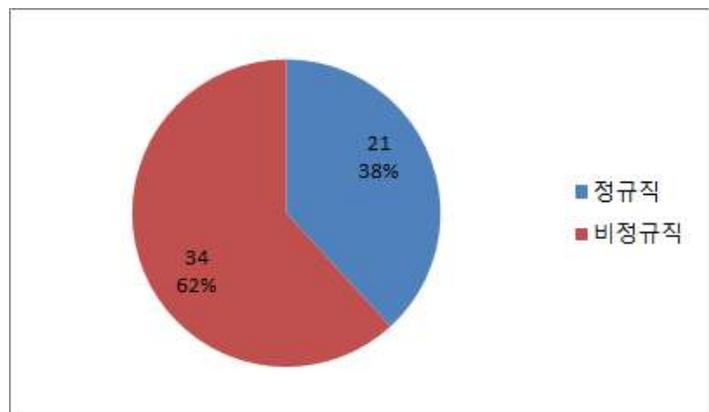
구분	빈도	퍼센트
1년미만	9	16%
1~3년	19	35%
4~6년	8	14%
7~9년	6	11%
10년이상	13	13%
합계	55	100%



## 2) 활동가 근무실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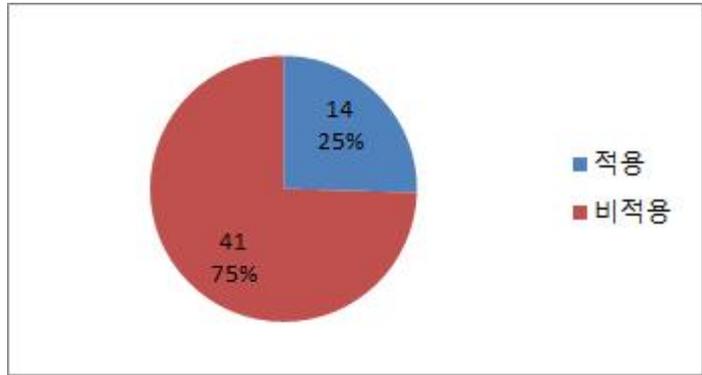
〈표5〉 고용형태

구분	빈도	퍼센트
정규직	21	38%
비정규직	34	62%
합계	5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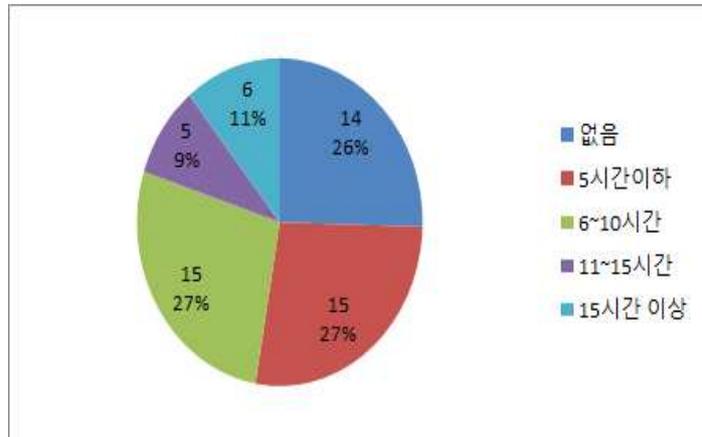
〈표6〉 4대보험 적용여부

구분	빈도	퍼센트
적용	14	25%
비적용	41	75%
합계	5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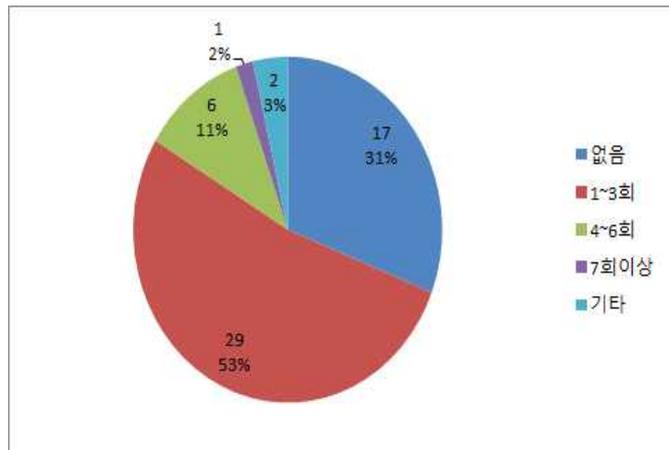
〈표7〉 주당 평균 초과근무시간

구분	빈도	퍼센트
없음	14	26%
5시간 이하	15	27%
6~10시간	15	27%
11~15시간	5	9%
15시간 이상	6	11%
합계	5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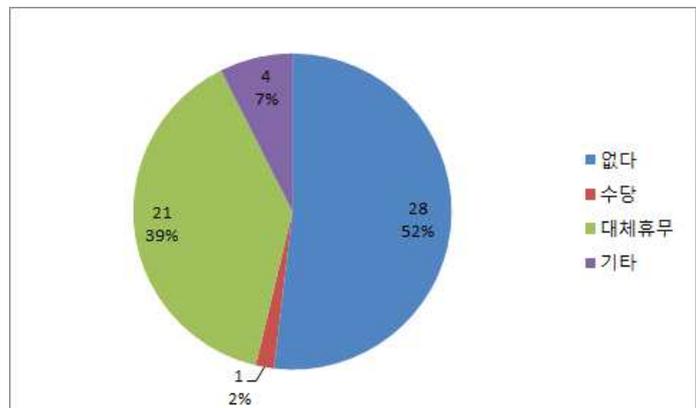
〈표8〉 월 평균 휴일근무 횟수

구분	빈도	퍼센트
없음	17	31%
1~3회	29	53%
4~6회	6	11%
7회 이상	1	2%
기타	2	3%
합계	5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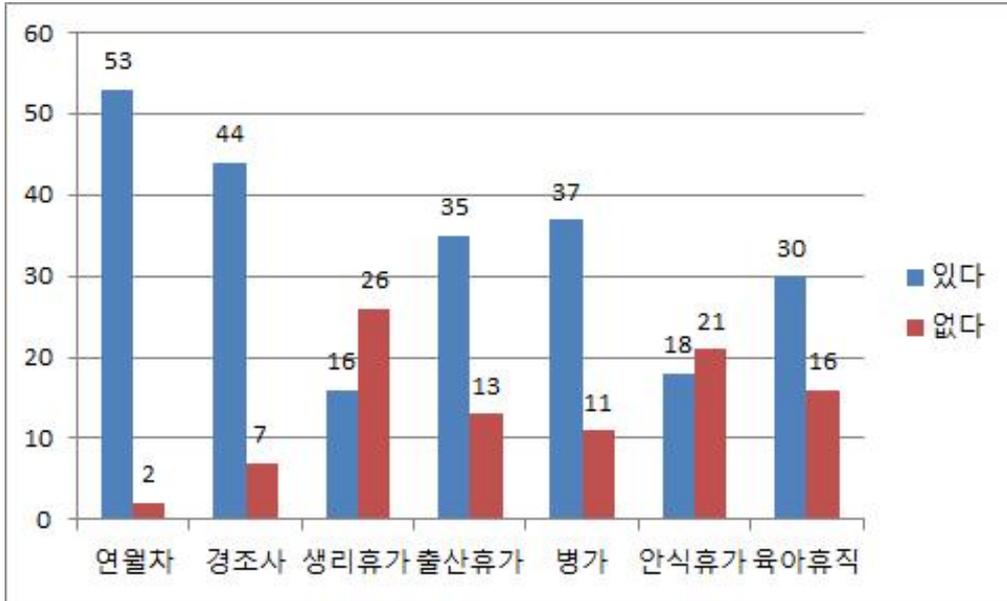
〈표9〉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

구분	빈도	퍼센트
없음	28	52%
수당	1	2%
대체휴무	21	39%
기타	4	7%
합계	5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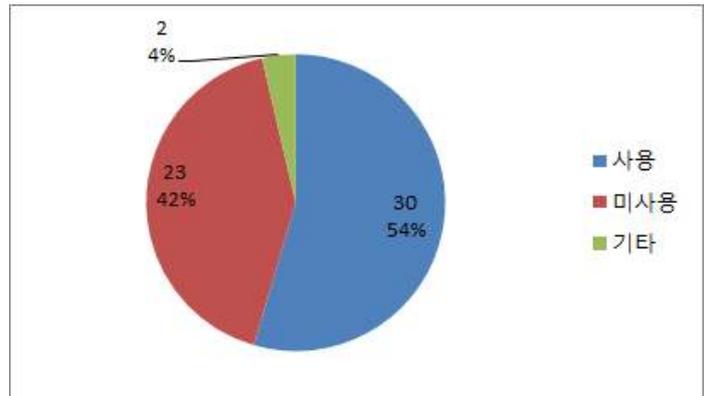
〈표10〉 단체 內 시행중인 휴가 종류

구분	연월차	경조사	생리휴가	출산휴가	병가	안식휴가	육아휴직
있다	53	44	16	35	37	18	30
없다	2	7	26	13	11	21	16
합계	55	51	42	48	48	39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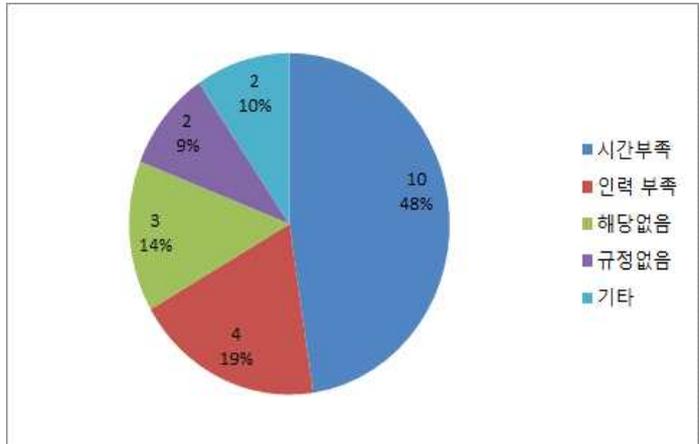
〈표11〉 시행중 휴가 사용

구분	빈도	퍼센트
사용	30	54%
미사용	23	42%
기타	2	4%
합계	55	100%



〈표11\_1〉 휴가 미사용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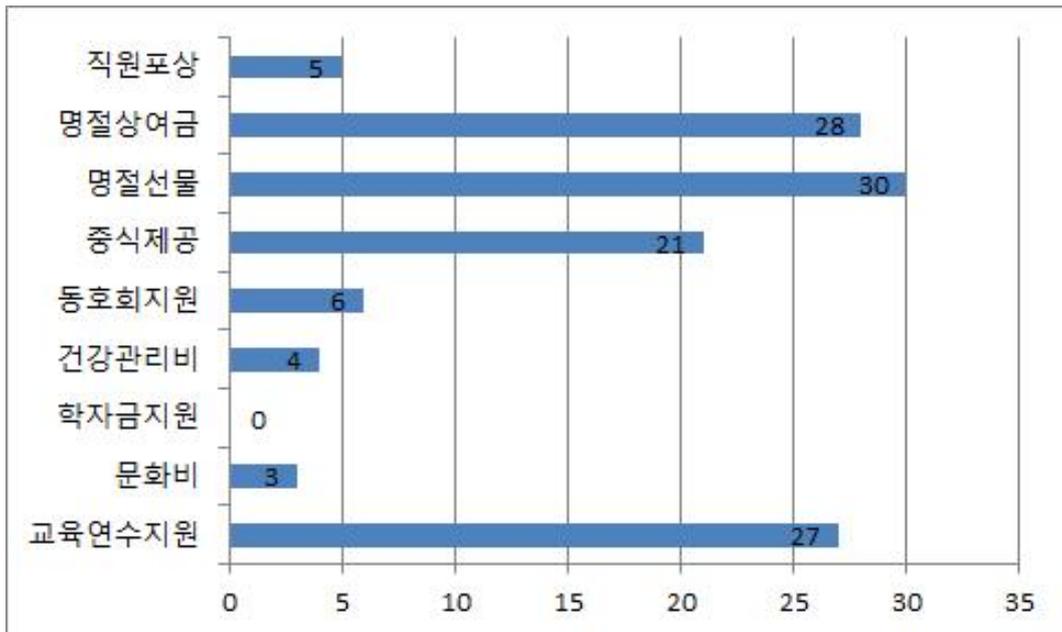
구분	빈도	퍼센트
시간부족	10	48%
대체인력 부족	4	19%
해당사항 없음	3	14%
규정에 없음	2	9%
기타	2	10%
합계	21	100%



### 3) 활동단체의 복지 및 근무환경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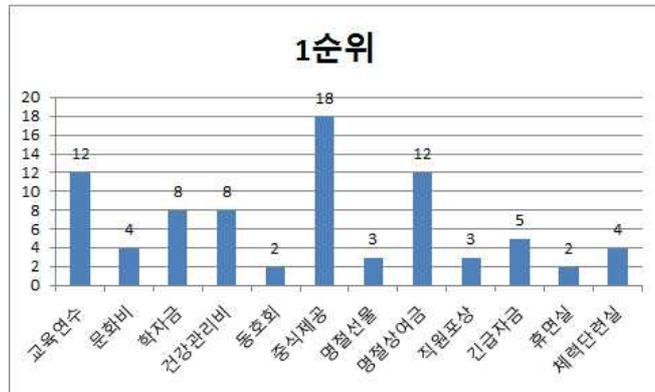
〈표12〉 단체 內 운영 복지후생제도

구분	교육연수 지원	문화비	학자금 지원	건강 관리비	동호회 지원	중식제공	명절선물	명절 포상금	직원포상
빈도	27	3	0	4	6	21	30	28	5
합계	총 50명 응답								



〈표13〉 지원받고 싶은 복지후생제도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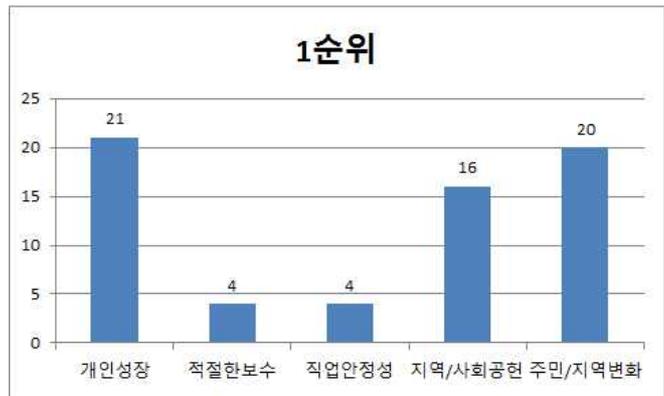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교육연수지원	12	9	10	31
문화비	4	7	5	16
학자금지원	8	2	3	13
건강관리비	8	8	4	20
동호회지원	2	2	2	6
중식제공	18	5	2	25
명절선물	3	1		4
명절상여금	12	5	4	21
직원포상	3	4	2	9
긴급자금지원	5	2	5	12
휴면실	2	4	5	11
체력단련실	4		6	10
합계	81	49	48	178





〈표14〉 지역활동가로서 자긍심 갖는데 중요한 요소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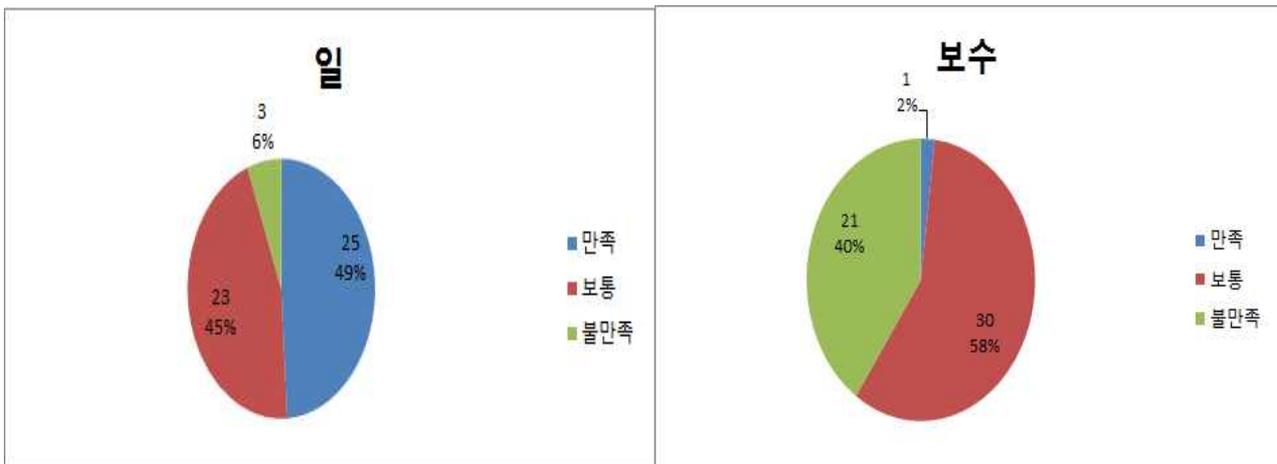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개인 성장과 발전	21	7	17	45
적절한 보수수준	4	12	8	24
직업의 안정성	4	7	7	18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16	12	8	36
주민과 지역의 공익적 변화	20	14	5	39
합계	65	52	45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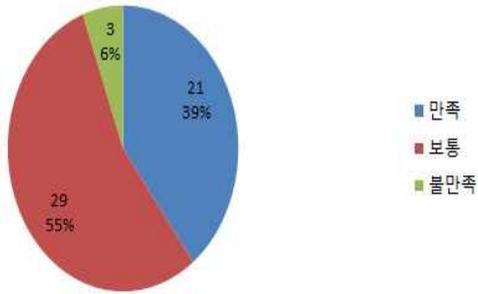


〈표15〉 직업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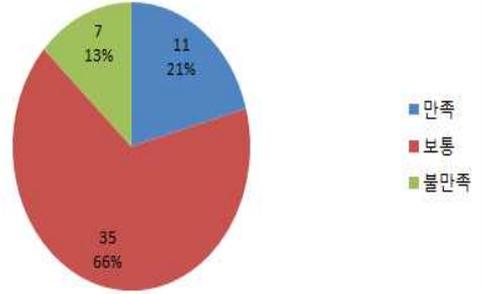
구분	만족	보통	불만족	평균
일(담당업무)	25(49%)	23(45%)	3(6%)	3.72
보수	1(2%)	30(58%)	21(40%)	2.19
구성원간의 관계	21(39%)	29(55%)	3(6%)	3.68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체계	11(21%)	35(66%)	7(13%)	3.15
성장을 위한 교육훈련기회	10(20%)	28(55%)	13(25%)	2.77
주요한 결정에 발휘하는 영향력	16(30%)	28(53%)	9(17%)	3.26
전체평균				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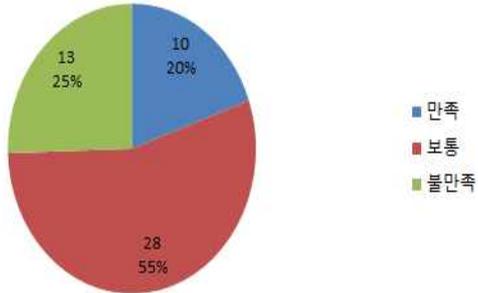
구성원간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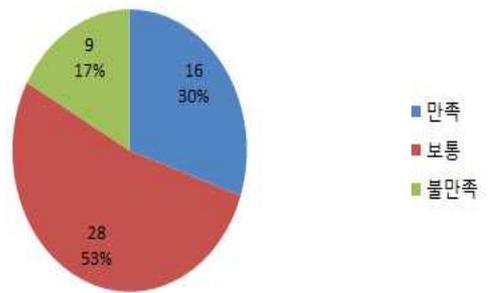
구성원간의 의사소통



교육훈련기회



결정영향력



### Ⅲ. 포커스그룹인터뷰 키워드 및 복지현장 기초안 마련 작업결과

핵심키워드	문제의식	대안
근로계약서	- 작성하지 않음 - 계약내용 잘름	- 작성하고, 계약서 제공 받을 권리 알고 지키기
교육지원	-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지원 필요 - 자율적 선택의 어려움	- 일정 시간과 금액지원 - 자율적 선택 가능하도록
대체휴무, 휴가	- 잘 지켜지지 않음 - 있다고 하여도 사용하기 어려움	- 초과근무 자제 - 눈치 보지 않고 사용 - 발생 시 휴무보장 ex) 해피데이 및 저녁회의 없는 날 등 지역의 분위기 쇄신 필요
내부규정	- 존재 유무를 모름 - 내용잘 모르거나, 지켜지지 않음	- 인사규정, 복지규정 등 필요 - 내부규정 기준안 마련 등
반상근(비정규)	- 복지에 대한 소외	- 협의를 통해 기준 마련필요
활동가 = 노동자	- 희생과 봉사를 강요 -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리기 어려움	-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식개선 필요

### 관악 공익활동가 복지현장 협약 추진일정

목록	시기	비고
관악 공익활동가 복지현장 협약 단체 1차 모집	2018년 1월 10일~20일	
관악 공익활동가복지현장 협약체결	2017년 1월 25~26일	2회 관악공익활동가 대회에서 진행
관악 공익활동가 복지현장 협약 단체 2차 모집	2017년 2월 1일~10일	
관악 공익활동가 복지현장 전달	2017년 3월 *관악공동조직준비위 창립	예쁘게 제작하여 협약한 각 단체별로 전달 예정입니다

# 관악공동조직 관악시민협력플랫폼 2018 사업 계획

## 시민사회 포괄적 네트워크 활성화

창립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회 워크숍, 공익활동가 대회, 찾아가는 공동조직설명회등을 통해 관악공동조직창립 공감대확산 및 설립</li> <li>- 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회 워크숍 1회 운영 (15명) / 매월 관악공동조직 월례회의 개최(간담회2회), 20명 참여 / 공익활동가대회 90명 참여 / 관악공동조직창립대회 100명참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기 : 2017년 11월-2018년 11월</li> <li>○ 참여대상 : 관악풀뿌리시민사회단체, 관악구 공익활동가</li> <li>○ 추진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회 창립준비워크숍개최 (2017년 12월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립준비를 위한 로드맵작성</li> <li>- 조직비전 및 사명, 사업 및 조직 초안마련</li> </ul> </li> <li>• 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회 조직소통위원회운영(월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비전 및 사명, 사업 및 조직등 구체화</li> <li>-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2018년 1월-2월) (관악공동조직참여단체 회원모임 및 운영위원회등)</li> </ul> </li> <li>• 2회 관악공익활동가대회개최 (2018년 1월 25일-26일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활동가대회 기획팀 운영 (1회 공익활동가대회준비위원 및 확대 10명구성)</li> <li>- 관악공동조직창립을 위한 활동가워크숍방식으로 진행</li> </ul> </li> <li>• 관악공동조직창립대회개최 (2018년 3월9일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악공동조직창립 총회마당(1부)</li> <li>- 관악공동조직창립 축하마당(2부)</li> </ul> </li> <li>• 관악공동조직 소통운영 (2018년 3월-2018년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악공동조직 지역사회 소통간담회(2회)</li> <li>- 2018년 활동 평가 및 비전워크숍 (1회)</li> </ul> </li> </ul> </li> </ul>
생활정치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년도에 진행한 공익활동가마당 시민정치팀, 정책포럼, 민주주의학교의 성과를 모아 2018년 지방선거, 3기 민주주의학교, 시민정치실천모임 조직을 통해 다양한 의제와 시민들이 결합하는 생활정치네트워크 조직</li> </ul>

- 613지방선거 10개분야 20개 시민정책과제 마련, 500명참여 정책제안대회개최, 4기 민주주의학교개최(총 8강 운영, 회당 참여자 35명, 월1회 기획팀 10명 정기회의 운영, 교육 만족도 80점 이상), 시민정치실천팀 1,2기운영(월1회 정기모임, 의정평가보고서발간, 예산 분석보고서발간), 의제네트워크 지원 (월1회 정기모임, 의제워크숍 30명 참여)

- 운영시기 : 2017년 11월-2018년 11월
- 참여대상 : 관악구 지역단체 활동가 및 지역주민
- 추진방법 :
  - 민주주의학교 진행  
(3기 2018년 6월-7월/4기 2018년 9월-10월)
  - 3기,4기 관악민주주의학교 정규교육진행  
(민주주의 일반, 지방자치)
  - 기획팀운영 (10명, 월 1회 정기모임, 학교기획, 운영, 평가)
  - 시민정치실천조직 (2017년 11월-2017년 11월, 상시)
  - 1기 시민정치실천모임 / 1,2기민주주의학교 교육생  
기존 의정 평가단 활동주민 약 20명
  - 2기 시민정치실천모임/ 3,4기 민주주의학교 교육생,  
1기 시민정치실천모임 참여자 약 30명
  - 월1회 정기모임을 통해 심화교육, 의·행정모니터링진행
  - 2018년 예산분석보고서 (2017년 12월),
  - 7대 관악구의회 의정활동평가보고서 발간 및 보고대회  
(2018년 2월)
  - 613지방선거 정책제안대회 (2018년 4월)
  - 2017년 복지, 환경, 청년포럼 및 지역사회 다양한 의제그룹과 정책제안  
대회 기획단 구성 (10개분야 20개정책)
  - 정책제안 워크숍개최, 정책제안대회 및 후보정책협약진행
  - 의제네트워크 지원 (2017년 11월-2018년 10월)
  - 613지방선거 정책의제네트워크 후속모임 (3회)
  - 의제네트워크워크숍 개최 (2017년 9월)

## 온/오프라인 플랫폼 거점 활성화

### 관악공동조직 개설

- 온라인 공동조직을 개설하여 공동조직참여단체와 활동가, 지역주민들의 개방적인 소통공간을 확장한다.  
-관악시민단체 5개 홈페이지 연동, 온라인 관악공동조직 500명참여인원

- 운영시기 : 2017년 11월-2018년 11월
- 참여대상 : 관악시민단체 활동가 및 지역주민
- 추진방법 :
  - 일상민주주의커뮤니티 온라인플랫폼 빠띠 사례연구  
(2017년11월-2018년 2월)
  - 관악공동조직 참여단체 온라인홍보활동가 초대모임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빠띠 개발자 초청 사례학습진행 및 온라인공동조직 컨셉논의</li> <li>• 빠띠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공동조직 플랫폼 개설 및 운영 (2018년 3월-11월 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빠띠 플랫폼 활용한 온라인공동조직 개통(창립일)</li> <li>- 관악공동조직 참여단체 온라인홍보활동가모임 협업으로 온라인공동조직 운영</li> </ul> </li> <li>• 관악공동조직참여단체 홈페이지에 온라인공동조직 연동</li> </ul>
<b>활력공간 마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악시민사회 협업 및 시민공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통해 공간확보방안을 마련한다.</li> <li>- 공간기획단운영(정기모임, 조사연구보고서작성, 시민사회활력공간제안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기 : 2017년 12월 - 2018년 11월(상시)</li> <li>○ 참여대상 : 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회 참여단체</li> <li>○ 추진방법 : 시민공간기획단운영</li> </ul>

**시민사회 자립전략 실행기반 마련**

<b>공동체경제 온라인플랫폼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관악위즐 법인설립을 통해 본격사업화 진행하여 온라인 지역공동체경제 플랫폼 구축지원</li> <li>- 위즐온라인회원 1천명, 위즐 프렌즈, 위즐 품 등 100곳 콘텐츠 개발 및 활용, 비영리조직 위즐 담당활동가 교육 4회 개최, 지역기금 50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기 : 2017년 12월 - 2018년 11월(상시)</li> <li>○ 참여대상 : 관악주민 및 지역자영업, 지역 비영리조직 및 마을공동체모임</li> <li>○ 추진방법 : 관악위즐 별도 법인을 추진하여 운영 (1차년도 시범사업 준비위원회에서 법인 설립 논의중)</li> </ul> <p>별도 법인 추진을 통해 실행 및 집행 인력 확보하여 운영 관악시민협력플랫폼에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 지원 (콘텐츠 제작비, 위즐품 비영리조직 활동가교육 1월-2월)</p>
<b>관악뿌리기금 조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악뿌리기금 준비위원회를 추진위원회로 확대하여 관악 지역기금 실행조직 구성, 지역재단의 비전 주체 수립</li> <li>-추진위원회 20명, 2018년 관악뿌리기금 5천만원 모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기 : 2017년 12월-2018년 11월</li> <li>○ 추진방법 : 1차년도 1천만원 모금 진행 및 배분</li> </ul>

( 관악공익활동가지원기금\_2회 공익활동가대회에서 기금지원 선정, 공익활동가 성장과 소통을 위한 자발적인 모임지원)

1차년도 관악뿌리기금 기부자 1차 초대모임을 진행하고 관악뿌리기금 추진위원회 조직 (분기별 모임진행, 추진위원회 조직체계 마련, 기획단 운영)

추진위원회 모임운영 (3월, 6월, 9월, 11월)

- \* 지역기금 및 지역재단에 관한 토론 및 사례학습
- \* 2차년도 5천만원 기금 계획 수립 및 추진

# 관악위즐을 소개합니다

관악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일상에서 위즐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주민들의 공간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연결

WIZZLE

위하고 즐기다=공동체 서로가 위하고 즐겁게 사는 삶을 만들어가요.

위즐은 지역자치공동체경제를 꿈꾸는 생활플랫폼 기업입니다.

위즐은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농업소생산자영농법인이  
출자하여 만든 시민 기업입니다.

위즐은 거대기업의 유통 독점을 막고,  
회원 회비로 유통 마진의 거품을 없애고자 합니다.

위즐은 생산자, 소비자, 유통 상인이  
공생하는 지역 내 경제 순환을 지향합니다.

위즐은 지역 공익 단체에 수익을 나누고 지역복지에 힘씁니다.

위즐은 지역의 전통과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상인들의 번영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위즐은 회원분들(위즐패밀리)와  
공익 단체(위즐품),  
지역의 가게(위즐프렌즈)로 구성됩니다.

**위즐패밀리,  
위즐품,  
위즐프렌즈가 되어주세요!**



위즐 회원(패밀리)이 되시면  
 위즐패밀리만을 위한 양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지역에서만 생산하는 소중한 상품과 서비스를 만나실 수 있어요.  
 지역의 검증된 단골 가게와 더욱 친해질 수 있어요.  
 지역의 경제 지도와 다양한 생활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요.

위즐품이 되시면  
 지역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던 것을  
 위즐회원과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위즐회원들의 공익 상품 구매를 통해 귀단체에 수익이 전달돼요.  
 위즐회원 모두에게 귀단체를 홍보하고 소통하실 수 있어요.

위즐프렌즈가 되시면  
 지역의 자치공동체경제를 만들기 위한 핵심 주체가 되실 수 있어요.  
 귀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위즐앱을 통해  
 회원분들께 알리고 소통할 수 있어요.  
 지역의 고객을 단골로 만들 수 있는  
 끈끈한 공동체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사장님은 위즐회원과 1:1 대화를 통해 다양한 소통을 할 수 있어요.

**앱 설치 방법**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서  
 위즐을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위즐을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앱 설치 방법**



**회원가입**  
 무료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  
 합니다.



**앱 설치 방법**



**로그인**  
 회원가입 승인  
 문자를 받으면  
 위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 5

## 참여단체 및 명단

## 참여단체

### ■ 관악교육복지네트워크

2008년부터 교육소외 아동, 청소년의 돌봄과 교육을 담당하는 배움터를 지원하고 성장과 변화를 돕는 지역네트워크 센터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심야식당, 위기지원네트워크, 청소년 봉사단, 돌봄네트워크, 교육복지지역의제발굴 조사연구등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만들기를 사업을 진행합니다. 전화 : 02. 886.1804 <http://gaeduwel.or.kr>

### ■ 관악구노동복지센터

2017년 11월 1일 부터 3년의 기한으로 서울시예산과 관악구청의 건물제공으로 운영되는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기관입니다. 민주노총서울본부 관악구 지부가 위탁단체 입니다. 주요사업은 노동 문제 상담 및 법률구제, 취업지원(중국어 포토샵, 김광일과 함께하는 창업지원), 노동인권교육(학생 일반인), 문화건강복지(요가 건강교실 주권환경개선사업) 사업을 진행합니다. 전화 02-886-7900

### ■ 관악도시농업네트워크

유기 순환하는 도시내 농업을 통하여 도시민의 농업체험을 통하여 생태환경과 농업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도시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로컬푸드운동을 확산합니다. 생태도시농업을 활용한 공동체 운동과 사회복지운동을 펼쳐나갑니다. <http://cafe.daum.net/antifta>

### ■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에서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자치의 꽃이라 할 것입니다. 98년 4월에 첫발을 내딛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명실공히 교육발전과 개혁의 선두주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을 비롯하여 학교 구성원, 지역주민들이 교육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 투명한 학교회계 만들기운동, 올바른 학교 운영위원 연수, 지역연대사업에 함께합니다. [school119.or.kr](http://school119.or.kr) 이메일 [budda1103@hanmail.net](mailto:budda1103@hanmail.net)

### ■ 관악사회복지

"우리는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주민과 함께 실천하며, 행복한 관악을 만드는 디딤돌이 된다" 관악 사회복지의 사명문입니다. 관악사회복지는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며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 배우고 실천하는 주민들의 힘을모아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전화 : 02.872.8531 [www.kasw21.or.kr](http://www.kasw21.or.kr)

### ■ 관악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꿈꾸는 사람들이 함께 지역 건강공동체로서의 꿈을 일궈가는 모임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건강실천과 돌봄활동을 진행중이며, 2018 창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의료인, 조합원이 협동하여 민주적 의료기관, 건강 생활, 지역 건강 돌봄,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보건복지부 인증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내 몸과 내 건강의 주인, 지역을 중심으로 삶의 변화를 꿈꾸며 건강한 관계를 지향하는 바로 당신을 기다립니다. 조합원 가입 02-888-0419

### ■ 관악주민연대

1995년 창립 이래, 풀뿌리주민자치공동체를 만들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며, 참여와 진보를 지향하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풀뿌리단체입니다.

전화 : 02-875-3196~7 <http://www.pska21.or.kr>

### ■ 관악청년정책네트워크(준)

관악구 청년정책을 제안, 모니터링하여 관악구 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년의 문제를 청년이 주체가 되어 해결할 수 있도록 작은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가야할 길이 멀지만 천천히 걸어보려합니다. 관악 활동가선배님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김체린 010-2627-8838 정연학 010-2625-0227 박희선 010-3240-1282

### ■ 관악푸드뱅크마켓

식품 및 생필품을 기부 받아 관악구 내 저소득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 나눔 공간으로 이용자가 푸드 마켓을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식품, 생필품을 직접 선택하는 상설 무료기관입니다. 낭비되는 식품을 감소시켜 식품자원 활용의 극대화 및 환경보호와 함께 푸드마켓·뱅크를 통해 이용단체의 시설 운영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기부 및 참여문화 확산을 통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복지공동체 달성에 기여합니다. 전화 : 872-1377

### ■ 나눔주민생활조합

관악사회복지 어르신모임 '은빛사랑', 관악푸드뱅크마켓 이용자 모임 '모두'의 회원 중심으로 '나눔주민생활조합'이 창립되었습니다. 은행 이용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소액대출 등 공제사업을 펼치는 '나눔주민생활조합'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협동경제방식으로 해결하는 주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이사장 심순섭 010-2247-6022 이사 김순복 010-3285-4703

### ■ 난곡사랑의집

난곡지역의 저소득 가정 아동 - 청소년과 독거노인, 결식아동과 함께 비문해자와 함께, 지역주민과 함께 더불어 삶을 꿈꿉니다. 전화 02-855-2550 <http://cafe.com/nangoklove>

### ■ 난곡주민도서관 새숲

난곡주민도서관 새숲은 1989년 10월 3일 달동네 난곡에 만들어진 작은도서관입니다. 새숲도서관은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최초의 작은도서관으로, 도서관학을 전공한 학생과 사서들 그리고 동네 청년들이 함께 만든 도서관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난곡을 지키며 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 새숲은 2015년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여 이전하면서 마을공공도서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화 : 839-1121 [www.nangoklib.org](http://www.nangoklib.org) 이메일 : [nangoklib@hanmail.net](mailto:nangoklib@hanmail.net)

### ■ 놀자엔터테인먼트협동조합

누구나 생활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릴수 있도록 창작활동을 지원하는사회적기업입니다. 취약계층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종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예술교육 (청소년, 취약계층 대상 음악창작, 악기, 공연체험 교육)과 예술기획 (마을축제, 콘서트기획 / 아무추어 예술동호회 육성), 홍보/컨텐츠제작 (음반, 비디오, 홈페이지, 인쇄홍보물 제작)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070-4633-0433 [www.noljaent.com](http://www.noljaent.com)

## 브릿지칼라

관악구를 음악 예술문화의 허브로 만들고 싶은 청년 음악단체입니다. 관악구에 거주중인 청년들이 음악이라는 매개체로 만나 재미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 유주호 010-4800-2165

### ■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연대와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악마을지원센터,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난곡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 02-6713-7500 <http://gwanaknet.kr>

### ■ 삼성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

삼성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가 자주적으로 참여하여 모든 조합원이 출자금액과 상관없이 1인 1표를 갖는 민주적 교육경제공동체입니다. 2015년 8월 26일 교육부인가를 시작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판매하는 매점 '푸드득(FOOD得)을 운영하며 동아리 세바쿵(세상을 바꾸는 쿵)과 함께 공정하고 윤리적인 사회적경제에 대해 배워갑니다.

전화 02-6493-7591 <http://cafe.naver.com/hrsamsungcomblne>

### ■ 서울관악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를 근거로 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및 자활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활근로 참여주민의 자활의욕고취를 위한 다양한 교육 실시와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과 더불어 인간의 가치가 우선하는 지역자활센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 02-867-8381 [www.iska.or.kr](http://www.iska.or.kr)

### ■ 세상과연애하기

소통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2010년 북카페 [세상과 연애하기]를 운영하며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홀몸어르신 반찬나눔, 청년예술가 공연지원, 소모임 공간지원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지역의 다양한 시민활동에 참여하여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북카페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길 14(2층) T.02-887-2621 [www.seyeon.org](http://www.seyeon.org)

### ■ 얼룩말공작소

영상창작집단 얼룩말공작소는 '모두 모여서 스스로 즐거운 창작을 하자!'는 기치 아래 영상콘텐츠·스토리텔링 교육사업, 각종 기관 및 행사 홍보영상, 웹드라마, 공공예술 프로젝트 등의 분야에서 활동중이며 자생적이고 지속가능한 창작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전화 : 송준호 010-4282-3177 [www.zebraworkshop.com](http://www.zebraworkshop.com)

### ■ 우리자리청소년공부방

어린이 청소년과 함께 참 삶을 가꾸는 지역사회교육공동체

전화: 02-837-3903, <http://naver.me/G6h8KzTM>

### ■ (주)이엠그린

EM(유용미생물) 사용을 통해 악취제거, 수질정화, 오염된 토양개량 등 생활 속 친환경생활을 추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이엠그린은 EM원액 제조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화 070-8103-7721 [www.emgreen.co.kr](http://www.emgreen.co.kr)

### ■ 찾아가는 사회적경제강사단협동조합

서울시와 관악구가 후원하고 관악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타가 주최·주관하여 관악주민과 활동가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사회적경제를 이끌 예비주체를 발굴하는 관악 사회적경제 활동가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중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이 모여 사회적경제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찾아가는 아동 청소년부터 청년까지 대상별 맞춤형 사회적경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 대상 사회적경제 체험교육프로그램, 사회적경제원리 체험가능한 교보재개발, 청년 대상 사회적경제교육, 창업지원프로그램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부터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관악봉천자활센터, 난곡난행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사회적경제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사장 이순미(010-8539-9893)

임시홈페이지 <http://gwanaknet.kr/bbs/list.php?bbsid=forum01>

### ■ 푸른공동체 살터

지속가능한 삶의 가치실현과 생명존중을 자연과 공동체 속에서 통합적 생태환경교육 및 현장체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살맛나는 터, 살고 싶은 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살터'는 넓고 큰 자연. 즉 대자연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순우리말입니다. 살터의 주 활동은 생태환경교육 및 문화예술 콘텐츠 연구 개발 및 교육, 주민자치 실현과 도시환경, 사회 환경, 자연환경 변화를 위한 활동, 지역공동체 형성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네트워크 등입니다.

<http://cafe.daum.net/ecokebikebi> E-mail : [ecoeram1@hanmail.net](mailto:ecoeram1@hanmail.net)

### ■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악구 지역 중증장애인 인권운동과 권리보장 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되었으며 2018년 현재 관악구 서림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동료 간 상담, 장애인 자립생활 훈련,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 운영, 장애인 생활스포츠 보치아 자조모임 운영, 장애인 차별 구제, 장애인식개선캠페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 등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02-6408-2033 <http://hcil.or.kr> 이메일 [hancil@hanmail.net](mailto:hancil@hanmail.net)

### ■ 협동조합관악위즐

지역자치공동체를 꿈꾸는 생활플랫폼입니다.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소상공인들이 함께하는 우리동네 기업입니다. 거대유통기업의 독점을 막고 회원회비로 유통마진의 거품을 없애고 생산자, 소비자, 상인이 공존하는 지역내 순환경제를 지향합니다. 지역의 공익단체에 수익을 나누고 지역복지에 힘씁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위즐 검색하여 설치하시면 됩니다.](#)

## 참가자 명단

연번	이름	소속	연번	이름	소속
1	강영임	관악사회복지	31	박정열	(주)이엠그린
2	강해경	관악도시농업네트워크	32	박종경	관악푸드뱅크마켓
3	곽충근	관악사회복지	33	박찬우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4	구명숙	사회적협동조합공동체관악	34	박희선	관악청년정책네트워크(준)
5	김나정	우리자리청소년공부방	35	배기남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6	김명철	관악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준)	36	배지용	난곡사랑의집
7	김미경	관악구청합치조정관	37	변정욱	관악교육복지네트워크
8	김미옥	관악주민연대	38	선영주	관악주민연대
9	김순복	관악사회복지	39	송보경	관악사회복지
10	김승오	사회적협동조합공동체관악	40	송준호	얼룩말공작소
11	김시애	난곡사랑의집	41	승정희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12	김연지	협동조합관악위즐	42	신중현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13	김영희	도시재생활동가	43	신희선	관악주민연대
14	김익	사회적협동조합공동체관악	44	심순섭	나눔주민생활조합
15	김인희	사회적협동조합공동체관악	45	안덕인	관악사회복지
16	김재필	놀자엔터테인먼트협동조합	46	안승우	관악푸드뱅크마켓
17	나윤주	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회	47	여용옥	사회적협동조합공동체관악
18	나호정	사회적협동조합공동체관악	48	유경아	사회적협동조합공동체관악
19	남상덕	관악교육복지네트워크	49	유주호	관악교육복지네트워크
20	남일	놀자엔터테인먼트협동조합	50	윤확돈	놀자엔터테인먼트협동조합
21	도혜은	놀자엔터테인먼트협동조합	51	이광국	주민소통기자단
22	박경란	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회	52	이명애	난곡주님도서관 새숲
23	박미향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53	이병모	세상과연애하기
24	박수진	서울관악지역자활센터	54	이수희	푸른공동체 살터
25	박승한	관악사회복지	55	이순미	찾아가는사회적경제강사단 협동조합
26	박영하	관악사회복지	56	이승배	서울관악지역자활센터
27	박은숙	관악도시농업네트워크	57	이은영	삼성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
28	박인영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58	이은정	삼성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
29	박재준	관악구 주민MC	59	이종열	관악주민연대
30	박정란	사회적협동조합공동체관악	60	이종환	사회적협동조합공동체관악

## 참가자 명단

연번	이름	소속
61	이주연	놀이엔터테인먼트 협동조합
62	이주형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관동지회
63	이지은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64	이현지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65	이희정	관악사회복지
66	전외숙	난곡사랑의집
67	전원구	관악푸드뱅크마켓
68	전종숙	관악도시농업네트워크
69	정가현	관악주민연대
70	정두영/이연수	관악주민연대
71	정유미	관악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준)
72	정은진	관악주민연대
73	조성호	관악사회복지
74	진준엽	협동조합관악위즐
75	최우령	관악푸드뱅크마켓
76	최은희	난곡사랑의집
77	최한샘	서울관악지역자활센터
78	한황화	관악사회복지
79	홍선	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회
80	권기상	브릿지칼라
81	유주호	브릿지칼라
82	홍수호	브릿지칼라

[ memo ]

[ memo ]

## 공익활동가대회를 함께 준비한 사람들

연번	이름	소속
1	김명철	관악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준)
2	박경란	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회
3	박희선	관악청년정책네트워크(준)
4	안승우	관악푸드뱅크마켓
5	유경아	사회적협동조합공동체관악
6	윤확돈	놀자엔터테인먼트협동조합
7	여용옥	사회적협동조합공동체관악
8	정가현	사단법인 관악주민연대
9	한황화	사단법인 관악사회복지
10	홍선	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회

## 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회

주소 :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 564 영신빌딩 3층

전화 : 02)6012-0146

메일 : gwanakwith@gmail.com

카페 : <http://cafe.daum.net/gwanakwith>